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항로 개척의 배경]

01. 동방에 대한 호기심 증폭

- 프레스터 존(Prestor John)의 전설
- 마르코 폴로[1254 ~ 1324, 원(元) 생활(1275 ~ 1292)]의 『세계 경이의 서(동방견문록)』(1300년경)

02. 동방 산물에 대한 욕구 증대

- **향신료(후추)**, 비단 등에 대한 수요 증가

03. 동방과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 통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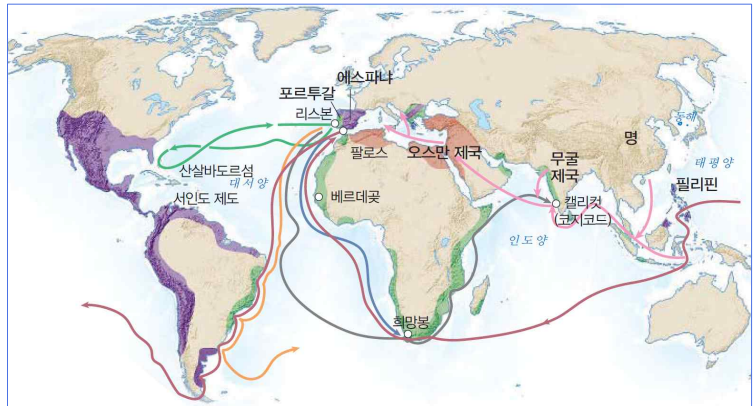
- 이탈리아나 이슬람 상인을 거치지 않고 동방의 산물 수입
- **오스만 제국의 동서 무역 주도**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동방 교역로 차단**

04. 종교적 동기

- 『맨더빌 이야기』의 요한 사제의 왕국
- 아시아에 크리스티교의 복음 전파

05. 기술의 발달

- 조선술 발달, 나침반 사용
- 원양 항해 가능



→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희망봉 발견) 포르투갈 본국과 그 식민지
 →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서인도 제도 도착) 에스파냐 본국과 그 식민지
 → 1498년, 바스쿠 다 가마(인도 항로 개척)
 → 1502년, 아메리고 베스푸치('아메리카'로 명명)
 → 1519~1522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세계 일주)
 → 신항로 개척 이전의 이슬람, 이탈리아 상인의 동방 무역로

[★신항로 개척의 전개]

01.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 주도

- 지중해 무역 소외
- 대서양 진출에 유리

02. 신항로 개척

포르투갈 (1143 ~)	특징	• 상업 지향적	
	인물	엔리케	• 선원 양성, 조선소 설립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 희망봉 도착(1488)
		바스쿠 다 가마	• 인도 항로 개척(1498)
에스파냐 (1469 ~)	특징	• 정복 지향적	
	인물	콜럼버스	• 대서양 횡단, 서인도 제도 도착(1492)
		아메리고 베스푸치	• 네 차례 중남미 탐험 • 서인도 제도의 신대륙 확인(1503) → 아메리카
	마젤란	• 카를로스 1세(재위 1516 ~ 1556)의 후원 • 필리핀 세부 막탄(Mactan) 섬에서 사망(1521) • 최초 세계 일주 (세바스티안 데 엘카노, 1522)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의 활동]

01. 유럽 세계의 팽창

-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시작
 - : 애덤 스미스(A. Smith, 1723 ~ 1790), 『국부론』(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사건, 1776)
-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확보 경쟁
 - : 에스파냐 → 아스테카(코르테스, 1521) · 잉카 제국(피사로, 1533) 정복, 대농장 건설 및 광산 개발
 - : 포르투갈 → 호르무즈 · 고아 · 마카오 등의 무역 기지를 건설하여 향료 무역 전개

02. 세계적 교역망의 통합

- 동인도 회사[영국(1600), 네덜란드(1602)]의 활동 → 교역의 활성화
- 중국산 비단 · 자기 · 차, 인도산 면화의 유럽 유입 → 막대한 양의 은(銀)이 중국 · 인도로 이동
 - : 일조편법(1573 ~), 지정은제(1712 ~)의 시행 뒷받침



〈아메리카 은의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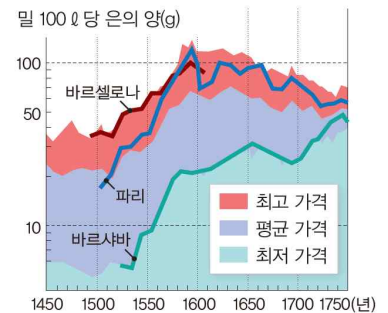
[★신항로 개척 이후 경제적 변인]

01. 교역망의 확대

-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

02. 가격 혁명(Price Revolution)

- 아메리카에서 금(金), 은(銀,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 등이 유럽에 유입
- 유럽의 물가 급등 → 봉건 지주 타격, 신흥 상공업 계층의 이익 증가



〈가격 혁명〉

03. 상업 혁명(Commercial revolution)

- 상공 시민들의 해외 시장 개척 → 근대적인 기업,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대자본 형성
- 길드 해체, 선대(先貸)제 · 매뉴팩처(Manufacture) 생산 방식 →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세계

[★아메리카 문명의 파고]

01. 마야(Maya) 문명(5 ~ 10세기)

- **치첸이트사** 중심, 피라미드형 신전, 천문학 발전, 0과 20진법 사용

02. 아스테카(Aztec) 문명(13세기 ~)

- 멕시코 고원의 **테노치티틀란**('신이 머무는 곳' , 계획도시) 중심
- 달력, 그림 문자, 피라미드형 신전 건설
-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1521)**

03. 잉카(Inca) 문명(12세기 ~)



〈마추픽추〉

- 안데스 고원 **쿠스코** 중심
- 태양신의 신전 건설
- 점을 쳐서 국가 중대사 결정
- 잉카의 길(전국적인 도로망 구축)
- **키푸 문자**(= **결승 문자**, 새끼줄 매듭을 통해 정보 교환)
- 계단식 농경으로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경작
-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1533)** → 마추픽추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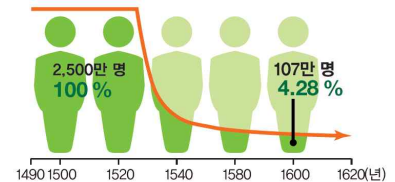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지배]

01. 엔코미엔다(Encomienda) 제도

- 국왕이 임명한 총독과 지방 장관(**코레히도르**)이 통치권 행사
- 강압적 통치와 살육, 천연두 등 전염병의 유입으로 **원주민의 수 급감**
-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통해 노동력 보충 → 사탕수수(하얀 금), 담배 등을 생산하는 **대농장 운영**



〈멕시코 고원의 인구 변화〉

02. 로마 가톨릭교회 전파

[아프리카의 세계]

01. 노예무역(slave trade) 성행

- 8세기 이슬람 상인의 시작
- **15세기 포르투갈 상인이 주도**
- 네덜란드,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등이 가담



〈대서양 삼각 무역〉

02. 대서양 삼각 무역(Atlantic Ocean Triangular Trade)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유럽

개념 Check

- ① 유럽의 신항로 개척은 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가 주도하였다.
- ②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한 ()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나 남은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1522년에 귀환함으로써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다.
- ③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일행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여 () 제국을 정복하였다.
- ④ 아메리카의 금, 은 등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럽에 유입되어 물가가 급등하는 ()이 발생하였다.
- ⑤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를 잇는 대서양 ()이 발달하였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잉해' 를 후원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수능]



- ①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 ② 벵골 지역을 동서로 나누는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 ③ 베트남을 차지하고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 ④ 호르무즈, 고아, 플라카, 마카오 등을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 ⑤ 리비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02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① 산업 혁명과 사회 문제의 대두
- ② 세포이 항쟁과 인도 통치 개선법
- ③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와 탄지마트
- ④ 농노 해방과 브나로드 운동의 전개
- ⑤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대서양 무역

03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기)의 국왕은 식민지의 광산 소유주들에게 광산 채굴에 원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포토시의 코레히도르는 그들을 위하여 쿠스코에서 타리하, 토미나 등 변경에 이르는 모든 지방에서 원주민을 모아들였다. 징발된 원주민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각자 배정된 광산으로 들어간 뒤 토요일 저녁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 광석을 채굴하고 운반해야만 하였다.

- 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를 지배하였다.
- ②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를 후원하였다.
- ③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였다.
- ④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⑤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 승리하여 발트 해로 진출하였다.

상식 넓히기

토르데시야스 조약



에스파냐의 요청으로 교황이 대서양에 가상의 선을 설정하여 영역을 나누었다. 이후 포르투갈의 항의로 경계선을 이동하여 토르데시야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지역은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를 각각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 유럽 근대의 흐름

중세 봉건 사회 말기	절대 왕정	근대 시민 사회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 대두◀	▶절대적 권한을 지닌 군주 출현◀	▶부르주아의 참정권 확대◀
① 봉건 질서 동요 ② 상공 시민 세력의 성장 ③ 사회 혼란 : 흑사병(14 ~ 15세기) : 왕위 계승 분쟁	① 서유럽(16세기 ~), 동유럽(17세기 ~) ② 전제 정치적 요소, 봉건 귀족의 특권 유지 ③ 시민들 주도로 초기 자본주의 성장 : 국왕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④ 근대 문화의 토대(17 ~ 18세기)	① <u>시민혁명</u> : 정치적 ② <u>산업 혁명</u> : 경제적 ③ 근대 문화의 완성(19세기)

[★절대 왕정(absolutism)]

01.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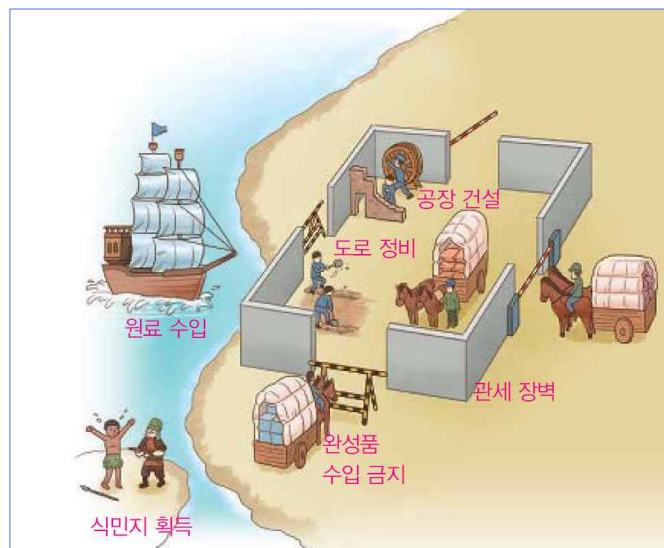
- 16 ~ 18세기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
-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적 정치 형태

02. 기반

-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 보쉬에 · 보댕) 이용 → 절대 왕정 정당화
- 관료제와 상비군 → 왕권 강화
- 시민 계급의 지원으로 재원 충당 → 신흥 상공업자를 비롯한 시민 계급의 경제 활동 지원

03. 경제 정책

- 중상주의(mercantilism, = 콜베르주의)
 : 상업과 무역 중시
 : 국가의 부를 늘리는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
-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국가의 간섭 · 통제
- 초기 중금(중은)주의 정책
 : 금 · 은 등 귀금속을 국부의 원천으로 인식
- 국내 산업의 육성과 보호
 : 완성품의 수입과 원료의 수출 금지
 : 관세 장벽
- 생산 방식
 : 매뉴팩처, 선대제(先貸制) 수공업
- 영토 확장과 교역망의 확대 경쟁
 : 왕위 계승 전쟁, 식민지 쟁탈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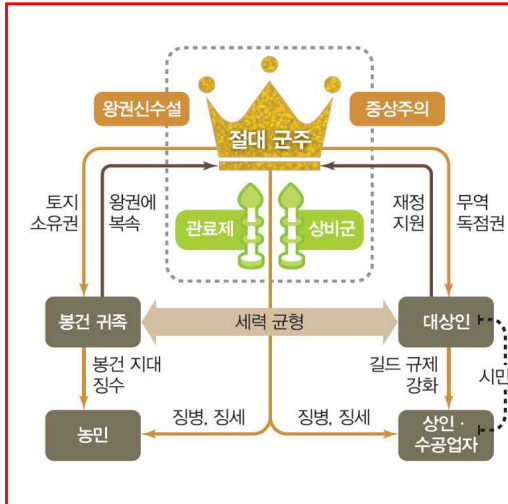
〈중상주의(『세계 역사의 이해 교수 학습 자료집』)〉

04. 특징

- 국왕이 봉건 귀족과 시민 계층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 없이 국정 주도
- 절대 군주 → 쇠퇴하는 봉건 귀족과 성장하는 시민 계층 간의 조정자 역할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서유럽 절대 왕정의 구조



• 모든 공업,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 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상인을 수공업 **길드에 편입**시키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맡고 **식민지를 발전시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 콜베르(1619 ~ 1683)가 재상 마자랭에게 보낸 편지

•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로 만드셔서,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 국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고서는 선을 이룰 수도, 악을 막을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정의 그 자체에 복종하는 것처럼 국왕에게 복종하라.

- 보쉬에, 『성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정치』

★서유럽의 절대 왕정

01. 에스파냐

1) 성립

- 15세기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여 중·남아메리카에 식민지 건설
- 식민지의 귀금속 유입으로 가장 먼저 절대주의 확립

2) 전성기

- **펠리페 2세(재위 1556 ~ 1598)**
 - : **무적함대**(Armada Invencible, = 위대하고 가장 축복받은 함대)
 - : 대서양 항로 장악
 - : **엘 에스코리알 왕립 수도원 건립**(1563 ~ 1584)
 - ↳ 왕실의 권위 신장,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호 의지
 - :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 격파(1571)
 - ↳ 지중해 해상권 차지
 - : **포르투갈 병합**(1580)



〈엘 에스코리알 왕립 수도원〉

3) 쇠퇴

- 국내 산업의 육성 미비
- **가톨릭 강요 정책과 네덜란드 독립 전쟁 발발(1568 ~)**
 - : 상공업 발달 지역인 **네덜란드 북부 7주의 독립(1581)**
- **칼레 해전**(Naval Battle of Calais, ⇄ 영국, 1588)
 - : 무적함대의 패배로 해상권 상실

■ 에스파냐의 포르투갈 병합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 국왕이 전사한 틈을 타 1580년 포르투갈을 병합하였다. 이후 포르투갈은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있다가 1640년 프랑스, 영국의 도움으로 다시 독립하였다.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서유럽의 절대 왕정]

02. 네덜란드

- 독립 전쟁(⇔ 에스파냐, 1568 ~ 1648)
: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 승인
- 동인도 회사 설립(1602)
: 적극적인 해외 진출 → 블라카 점령(⇔ 포르투갈, 1641)
- 수도 암스테르담,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기능
- 17세기 유럽 최대의 해운 국가로 성장
⇔ 크롬웰(1599 ~ 1658), 항해 조례 발표(1651)

▣ 동인도 회사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위해 만든 회사이다. 동인도 회사는 본국 정부로부터 무역 뿐 아니라 군대를 보유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03. 영국

- 1) 헨리 7세(재위 1485 ~ 1509)
 - 튜더 왕조 개창, 절대 왕정의 기초 마련, 국내 상업 장려
- 2) 헨리 8세(재위 1509 ~ 1547)
 - 수장법(1534), 의회와 원만한 관계 유지, 해군 육성
- 3)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 ~ 1603)
 - 통일법 반포(1559) → 국왕의 권위 강화
 -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프란시스 드레이크, 1588)
 - 동인도 회사 설립(1600)과 해외 개척
 - 수출 산업 육성(제철·유리·제염), 모직물 공업 육성(제1차 인클로저 운동)
 - 셰익스피어(1564 ~ 1616) 등 유명 작가의 등장으로 문화 발달

▣ 제1차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영국에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양털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주들이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인클로저운동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몰락한 농민들과 빈농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실업자 및 빈민이 되었다. 이를 구제하고자 엘리자베스 1세는 구빈법을 제정하였다.

04. 프랑스

- 1) 앙리 4세(재위 1589 ~ 1610)
 - 부르봉 왕조 개창, 절대 왕정의 기틀 마련, 낭트 칙령(1598)으로 위그노 전쟁(1562 ~ 1598) 종식
 - 동인도 회사 설립(1604)
- 2) 루이 14세(태양왕, 재위 1643 ~ 1715)
 - 프롱드의 난(1648 ~ 1653) 진압
 - ‘집이 곧 국가이다. 왕은 오직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콜베르(1619 ~ 1683)를 재무 장관으로 등용
 - 바로크 양식의 베르사유 궁전 건축 → 왕실의 권위 과시, 화려한 궁정 문화 형성
 - 낭트 칙령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 → 위그노의 해외 망명 증가로 국내 산업 침체
 -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 ~ 1713) 등 무리한 전쟁으로 재정난 심화

▣ 콜베르의 의견서(1664)

모든 무역에서 국내 제조 공업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수입할 때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국외에서) 제조되어 들어오는 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며, 국내 공업 제품의 출국세를 경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동유럽의 절대 왕정]

01. 특징

- 17세기 중엽 성립
- 평원 지역이 많아 서유럽에 비해 농업 발달
- : 도시와 상공업 발달 부진(시민 계급의 성장 미약), 재판(再版) 농노제(농노제 강화)
- 계몽 전제 군주 표방

▣ 계몽사상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면서 계몽을 통해 모순과 불합리를 타파하여 인간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낙관하였고, 계몽 전제 군주와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02. 양상

1) 프로이센

-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 ~ 1786)
- : 계몽사상의 영향, ‘국가 제일의 공복’ 자처, 『반(反)마키아벨리론』(1740)
- : 행정·사법·교육 제도의 개혁 노력, 산업 장려, 종교적 관용 정책, 상수시 궁전 건립(1747)
-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오스트리아) 이후 슐레지엔 지방 차지
- : 폴란드 분할 점령(1772)

2) 오스트리아

- 마리아 테레지아(재위 1740 ~ 1780)
- : 슐레지엔 지방 상실, 폴란드 분할 참여(1772),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 번성
- 요제프 2세(재위 1765 ~ 1790)
- : 계몽 전제 군주 자처
- : 귀족의 면세 특권 폐지, 농노 해방 등 내정 개혁 시도 → 보수 귀족 세력의 반발로 실패

3) 러시아

- 이반 4세(재위 1533 ~ 1584)
- : 차르(Czar, 황제) 전제 정치 실시, 시베리아(Siberia) 진출
- 미하일 표도로 비치(재위 1613 ~ 1645)
- : 로마노프 왕조 개창, 영토 회복
- 표트르 대제(재위 1682 ~ 1725)
- : 서구화 정책을 표방하며 서유럽 기술과 문물 적극 수용
- :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유럽의 빛이 들어오는 창, 1703) → 천도(1713)
- : 청(淸)과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1689)
- : 스웨덴과 북방 전쟁(1700 ~ 1721)을 통해 발트 해 진출
- : 동방정책으로 시베리아 통치
- 예카테리나 2세(표트르 3세의 왕비에서 황제로, 재위 1762 ~ 1796)
- : 계몽 전제 군주 자처
- : 관료제 강화, 법전 편찬 등 내정 개혁, 농노제 강화
- : 흑해 진출, 알래스카 획득, 제1차 폴란드 분할 참여(1772)



〈예카테리나 2세〉

유럽 세계의 변화 - 절대 왕정의 발전

[절대 왕정 하이 전쟁]

01. 배경

- 국왕이 대규모 군대 동원 가능 : **직업 보병대 등 상비군** 운영
- 복잡한 혈통 관계

02.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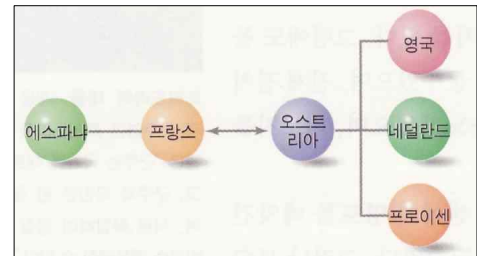
- 종교 갈등으로 빚어진 전쟁
-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전쟁**
-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 해외 무역과 식민지 확보 전쟁



- ① _____ 해전
- ② _____ 전쟁
- ③ _____ 전쟁
- ④ 레판토 해전
- ⑤ _____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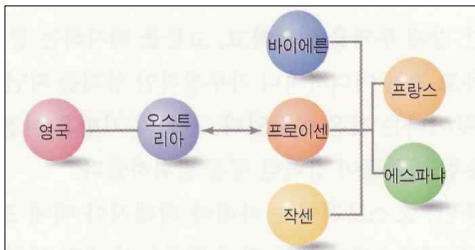
03. 전쟁

- 1)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 ~ 1713)
 - 루이 14세(재위 1643 ~ 1715) 유발
 - 위트레흐트 조약(treaties of Utrecht, 1713)으로 종결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 2)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 ~ 1748)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 프리드리히 2세가 유발
- 프로이센의 승리 : **슐레지엔 지방 영유**

- 3) **7년 전쟁**

- **유럽(1756 ~ 1763)** :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지방을 되찾기 위해 프랑스·러시아와 동맹을 맺자, 프로이센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작센 지방에 침입하여 일어난 전쟁
- 오스트리아·프랑스·러시아 ⇄ 프로이센·영국
- 요트르 3세(재위 1762)의 양보로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의 승리**
- **프렌치·인디언 전쟁(1755 ~ 1763)** : 아메리카 식민지 전쟁, 영국 ⇄ 프랑스, **영국 승리**
- **플라시 전투(1757)** : 인도 식민지 경쟁, 영국군 ⇄ 프랑스군과 벵골 태수 군대 연합, **영국의 승리**

17 ~ 18세기 유럽 문화

[절대 왕정 시대의 예술(『금성 · 미래엔 · 비상교과서』)]

01. 특징

- 중세적 성격 + 근대적 성격
- 절대 왕정의 힘과 권위 강조
- 각국의 고전 문학 발달

02. 17세기

- 바로크 양식



- ✓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
- ✓ 화려, 동적, 유동성 풍부, 생명력과 위엄 있는 표현
- ✓ 장대함, 풍요, 복잡한 장식과 뛰어난 기교
- ✓ **베르사유 궁전**
: 루이 13세 때 지은 별장을 루이 14세가 증축
: 거울의 방(공간감과 장식성 강조)

- 궁정화가
: 루벤스(플랑드르), 렘브란트(네덜란드), 벨라스케스(에스파냐)
- 바로크 음악
: 바흐 · 하이든 · 헨델, 오페라의 출현과 유행
- 고전 문학 유행
: 라퐁텐(1621 ~ 1695), 『우화 시집』(1668 ~ 1694)



〈렘브란트(1606 ~ 1669), 야간 순찰〉

03. 18세기

- 로코코 양식



- ✓ 바로크 양식에 비해 세련된 섬세함과 경쾌함
- ✓ 장식성 풍부, 우아, 기교적
- ✓ 건축, 회화 등 여러 분야의 예술 연계
- ✓ **상수시 궁전**(‘근심이 없다’ , 포츠담, 1747)
: 프리드리히 2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건립
: 볼테르를 비롯한 계몽사상가와 교류

- 고전 음악
: 헨델(1685 ~ 1759), 모차르트(1756 ~ 1791), 베토벤(1770 ~ 1827)
- 그림
: 귀족과 부유한 시민 계급의 향락적 생활을 그린 그림
- 문학
: 대니얼 디포(1660 ~ 1731), 『로빈스 크루소』(1719)
: 조너선 스위프트(1667 ~ 1745), 『걸리버 여행기』(1726)



〈부세, 마담 폼파두르〉

개념 Check

- ① 절대 왕정은 국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 ②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였다.
- ③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 궁전을 건축하였으며, ()를 등용해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의 프리드리히 2세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국가 제일의 공복’임을 자처하였다.
- 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를 분할 점령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이곳은 [가]의 명령으로 건설된 엘에스코리알 왕립 수도원입니다. [가]은/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로마 가톨릭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 ① 콜베르를 등용하였다.
- ②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 ③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 ④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02

(가), (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 [가]은(는)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선박 건조 기술을 배우고, 영국에서는 교육과 의회 제도를 살펴보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 [나]은(는) “군주는 단지 자신의 명망을 좇는 자가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 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관료제를 확립하고 내정을 개혁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① (가)는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 ② (가)는 『반마키아벨리론』을 저술하였다.
- ③ (가)는 (나)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하였다.
- ④ (나)는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였다.
- ⑤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